

#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경쟁 점화

### 향후 총선·대선 영향력 행사 ... 대권도전 전초전 정세균 우위속 손학규·정동영·박주선·김효석 도전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내부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이번엔 선출되는 당 대표는 추후 총선과 대선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권을 거머쥔 뒤 정부 여당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내보이는 데 성공한다면 대권기도에도 파란 불이 켜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전당대회는 사실상 대권 도전의 전초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단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인물은 정세균 대표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엮어 당내 입지를 탄탄하게 다졌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권에 도

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동영 의원과 손학규 전 대표의 행보는 더욱 복잡해졌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세 걸림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승리로 나타나자 정 의원 주변에서 '신종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더 이상 주저한다면 추후 대권도전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출마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손 전 대표도 주변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세균 대표의 당권 재도전 여부 등 당내 역학구도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당대회가 7월이 아닌 8월에 치러진다면 손 전 대표가 7월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정리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효석 도당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18대 국회 진입 이후부터 꾸준히 바닥을 관리해 오면서 당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효석 도당위원장은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당권 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지도부 체제 등을 놓고 당 내부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주류 측에서는 7월 전당대회와 현재의 집단지도체제 유지를 원하는 반면, 비주류에서는 7월 재보선 이후 전당대회 개최와 순수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는 현재의 집단지도체제 방식이 유지된다면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3선의 이낙연 의원, 김성곤 의원, 유선호 의원 등이 최고위원직에 도전할 마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당위원장 강기정·김재균 거론  
도당위원장 이낙연·최인기 물망

민주 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 위기 촉각

### 민주당 시당위원장 누가 말나

민주당 내부에서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물 밑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 자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반기 광주시당위원장은 재선의 강기정 의원과 초선의 김재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미 일부 광주 국회의원들에게 하반기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강 의원이 당내 강성 주류로 활동하면서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일각에서는 초선인 김재균 의원이 하반기 광주시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열린우리당 시절, 광주시당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데다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도 비교적 원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내 비주류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하반기 전남도당위원장은 3선의 이낙

연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화 여부는 유동적이다. 이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할 경우, 최고위원 도전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나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지 않는다면 도당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의 최인기 의원과 우윤근 의원의 전남도당위원장 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과 우 의원이 각각 하반기 국회 농업수산식품위원장과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과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데 지도부의 문제가 있지만 시·도당 위원장의 책임도 크다"며 "이번에는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아성인 강원도에서 선거혁명을 이룬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인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당선인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11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처시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아예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면 강원도지사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우려 속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렵사리 강원도에서 확보한 승리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치단체장의 지위를 제한한 지방자치법 111조1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서둘러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18대 하반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누구?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이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욱임 원내대변인, 이균현 원내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이상 한나라당), 박 원내대표,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전현희 원내대변인(이상 민주당)

## 국회의장 6選 박희태 가장 유력

부의장 정의화·박종근·이해봉 경쟁  
민주당 박상천·이미경·홍재형 경합  
정무위 허태열·국방위 원유철 거론  
민주, 법사위 우윤근·지경위 김영환

여야가 오는 8월 국회 본회의에서 18대 하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어서 국회의장단 면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월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갖고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장단 구성 후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의장=여당 몫인 국회의장직에는 현재 한나라당 6선인 박희태(경남 양산) 의원이 가장 유력한 상태다. 당내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으로 당 대표를 역임했을 뿐 아니라 친이(친이명박)계면서 친 박(친박근혜)계에서 거부감이 비교적 덜하기 때문이다. 일단 김무성 원내대표는 7월 연찬회에서 의원들간 자유투표를 통해 국회의장 후보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선 출신의 4선인 이윤성 의원이 국회의장직에 도전장을 던졌다. 역시 친이계인 이 의원은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국회부의장=여당 몫 국회부의장 한 자리에는 4선 의원들간 경쟁이 붙었다. 친이계인 부산 출신의 정의화 의원과 친 박계인 박종근(대구 달서구갑), 이해봉(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박희태, 이윤성 의원 모두 친이

계인 만큼 국회부의장을 친박계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만약 친박계가 가다가 잡힐 경우 연장자이고 원만하며, 계파색이 비교적 덜은 박종근 의원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는 민주당에서 5선의 박상천 의원과 4선의 이미경 사무총장, 3선의 홍재형 의원 등이 경합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은 5선의 경륜과 과거 원내총무 등을 지낸 풍부한 의정 경험이 강점이다. 대선 직후 대통령직을 거쳐 공로도 있어 명분도 충분하다. 하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원내대표와 부의장이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 출신인 홍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충청권 승리의 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충청권의 후보가 패배하고 또다시 부의장 경선에서 쓴맛을 보게 된다면 충청도민들에게 납득할 수 없으며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여성 국회부의장을 노리는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어 역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를 위시한 주류 측에서 이미 내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 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상임위원장=이번 상임위 배정에도 인기 상임위 출립현상과 비(非)인기 상임위 기피현상이 뚜렷하다. 모두 11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받은 한나라당에서는 정무위 허태열 의원, 국방위 원유철 의원, 기재위 김성조 의원, 예결특위 이주영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장은 친박계 송광호 의원과 친이계 장광근 의원이, 문방위원장은 정병국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1년씩 갈아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초 1년씩 의통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던 남경필, 권영세 의원은 상임위원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통위원장에 원희룡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진석 의원이 '1년짜리 문방위원장' 대신 도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행안위는 안경률 의원이 위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인기, 정갑윤 의원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막판까지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법사위 우윤근 의원, 지경위 김영환 의원, 교과위 변재일 의원, 농식품위 최인기 의원, 환노위 김성순 의원, 여성위 최영희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추가 변동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 상위권대학 기침없이 합격시킨다

<b>개강 ▶ 7월 1일 대학편입 강좌안내</b>	<b>편입영어</b>	기초아문반	편입영어 편입을 위한 어휘(문법) 지식과 문법 실용능력 향상
		문법영어 확충반	편입영어 특강을 통해 대학 4학년 편입을 위한 실용영어 능력 향상
	<b>편입수학</b>	마지막반	편입수학에 대한 실용수업과 그에 대한 전답을 연습하는 기조반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imyoung.co.kr

#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8088, 227-8088